

독립·예술영화 이젠 쉽게 만난다

전문 플랫폼 ‘인디그라운드’ 오픈
‘사당동 더하기 33’ ‘이장’ 등
70편 무료 온라인 스트리밍
동네서점 등 ‘공동체 상영’ 지원도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유통 배급 환경 개선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경진)가 설립한 ‘인디그라운드’가 최근 독립·예술영화 전문 플랫폼으로 정식 오픈했다.

인디그라운드는 창작자와 관객을 연결하고, 상영과 배급을 확대하며, 더 많은 곳에서, 더 다양한 독립예술영화를, 더 가깝고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한다.

인디그라운드에서는 독립예술영화 배급·유통사, 독립예술영화전용관·커뮤니티시네마 관계자, 창작자 등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구성원들과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 독립예술영화의 유통 배급 환경을 점검하고 새로운 유통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인디그라운드는 그 첫번째 프로그램으로 70편의 독립영화를 온라인으로 스트리밍하는 ‘독립영

화 라이브러리’를 진행중이다.

지난 25일 시작된 ‘독립영화 라이브러리’는 지난 해 인디그라운드 공모에서 선정된 70편(장편 20편, 단편 50편)의 국내 독립·예술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기획으로 제46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조은 감독의 ‘사당동 더하기 33’, 단편 대상을 수상한 이나연, 조민재 감독의 ‘실’을 비롯해 지난해 극장 개봉한 정승오 감독의 ‘이장’, 이은구 감독의 ‘뽕파레’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박운진 감독의 ‘내연전지현과 나’와 배우 이정음이 열연한 부지영 감독의 ‘여보세요’, 강말금 배우의 섬세한 연기가 돋보이는 김도영 감독의 ‘자유연기’,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제작된 ‘공동의 기억: 트라우마’, 방성준 감독의 ‘그 언덕을 지나 는 시간’, 이나연 감독의 ‘아프리카에도 배추가 자라나’ 등도 볼 수 있다.

‘독립영화 라이브러리’ 전 작품 상영은 31일까지 진행되며,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2월부터는 ‘예술’, ‘디아스포라’, ‘사랑’, ‘여성’, ‘트라우마’, ‘위로’ 등을 주제로 다양한 큐레이션을 통해 ‘독립영화 라이브러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인디그라운드는 이와함께 ‘독립영화 라이브러

리’에 구축된 작품당 4회의 무료 ‘공동체 상영’을 지원한다. ‘공동체 상영’은 영화를 보고자 하는 관객들이 직접 상영회를 기획, 홍보, 상영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독립영화가 가진 열악한 배급환경을 극복하고, 관객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라도 영화 관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기획이다. 영화제 이후 관람할 수 있는 창구와 기회가 없는 영화, 개봉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상영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영화, 공동체 내에서 함께 보고 토론하고 싶은 영화를 극장을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공간(동네 카페, 서점, 마을회관, 갤러리 등)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 내 ‘공동체 상영 신청하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2월 중순부터는 오랜 기간 독립영화 배급을 진행해온 현장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함께 하는 ‘인디그라운드 배급 아카데미’를 시작한다. 3월엔 창작자와 독립영화 유통배급 주체들의 연결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독립영화 매칭 워크숍: 퍼스트링크’가 개최되며, 독립영화라이브러리 중 ‘청소년 추천 독립영화’로 선정된 작품들의 교육 자료가 현재 개발 중으로 추후 인디그라운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영화진흥위원회는 최근 독립·예술영화 전문 플랫폼 ‘인디그라운드’를 오픈하고 ‘독립영화 라이브러리’를 진행중이다. ‘여보세요’(왼쪽)와 ‘그 언덕을 지나 는 시간’ 스틸컷.



영화로 본 인도·태국 여성의 성차별 현실 비판

ACC ‘인도, 영화로 읽다’ ‘여성주의로 읽는 태국 여성의 삶’ 펴내

‘영화’와 ‘여성주의’를 키워드로 인도와 태국을 조명한 인문서 2권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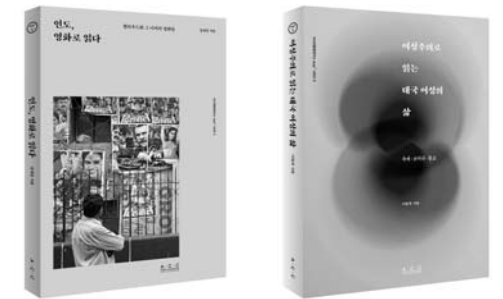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박태영)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이 펴낸 ‘인도, 영화로 읽다’와 ‘여성주의로 읽는 태국 여성의 삶’이 그것. 전자는 세계 최대 영화 제작국인 인도를 영화의 창을 통해 소개했으며, 후자는 태국의 성차별적 현실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두 책 모두 아시아 시선을 바라보는 ‘아시아플러스 Asia+’ 시리즈 일환으로 출간됐다.

먼저 ‘인도, 영화로 읽다’는 다양한 언어와 민족, 문화를 가진 인도 특유의 다양성과 혼종적 특성을 담았다. 아시아 영화 연구자인 강내영 교수가 저자다. 강 교수에 따르면 인도에는 대표적 영

화로 알려진 Bollywood 영화 외에 지역색을 갖춘 로컬 영화가 공존한다. 이 두 영화는 상업 영화, 사실주의 계열의 예술 영화로 인도 영화의 두 축을 담당한다.

저자는 ‘양극성의 예술’을 중심으로 인도 영화의 어제와 오늘을 소개하며, 한편으로 인도 영화를 대표하는 주요 작품과 감독을 분석해 21세기 뉴 인디언 시네마의 부상과 도전을 조망한다.

‘여성주의로 읽는 태국 여성의 삶’은 축제와 코끼리, 불교를 모티브로 태국 여성들의 삶을 들여다 본다. 여성학 연구자 이동욱이 저자로 참여했으며, 국가 주도 관광산업과 불교의 전통문화가 여성을 어떻게 차별하고 주변화하는지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이같은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태



국 여성들의 한계 극복 움직임에 주목하며, 여성주의적 가치와 리더십의 양립 가능성을 모색한다.

한편 ‘아시아플러스 Asia+’는 아시아문화와 다양성을 이해하고자 기획됐다. 지난해 발간한 총서 ‘해상 실크로드와 동아시아 고대국가’는 2020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된 바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성진 잘츠부르크서 모차르트 미발표곡 세계 초연

27일 모차르트테움 그레이트홀

피아니스트 조성진(27)이 최근 발견된 모차르트(1756~1791)의 미발표곡을 그의 고향에서 265번째 생일을 맞아 처음으로 연주한다.

최근 모차르트 연구기관인 모차르트테움 등에 따르면 조성진은 오는 27일 오후 6시(현지시간) 오스트리아잘츠부르크 모차르트테움 그레이트홀에서 세계 초연곡인 ‘알레그로 D장조’를 선보인다. 1분 34초 길이의 피아노곡으로, 모차르트테움 측은 모차르트가 17세였던 1773년 초 이탈리아 여행 중 작곡했거나 고향인 잘츠부르크에 돌아와서 작곡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 2018년에 개인 소유의 악보를 산 모차르트테움이 미국과 독일 등 전문가 확인 과정을 거쳐 공개했다.

이번 공연은 매년 모차르트의 생일을 맞아 잘츠



부르크에서 열리는 음악제 ‘모차르트 주간’의 일환으로 열리며 모차르트테움 연구책임자인 독일 출신 음악학자 올리히 라이징거가 해설을 맡는다. 조성진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2번’과 ‘뽕파레’, ‘알레그로 C장조’ 등을 연주한 뒤 마지막 순서로 미발표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연주는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 도이체 그라모폰(DG)의 클래식 공연 온라인 서비스 ‘DG 스테이지’와 온라인 유료 클래식 채널 피델리오, 메디치TV 등을 통해 방송된다. /연합뉴스

평화의 세상을 향한 성찰과 지혜

임형택 시인 ‘우리 함께…’ 펴내

시가 가진 아름다움과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를 교육상당에 활용해온 임형택 시인(광주대 교수)이 네 번째 시집 ‘우리 함께 평화아리랑’(청해사)를 펴냈다.

이번 시집은 평화 세상을 향한 성찰과 지혜를 담은 시 99편의 작품이 담겨 있다. 제1부 평화 마음 지니기, 제2부 평화 꿈 빛 다지기, 제3부 평화 세상 만들기로 구성돼 있으며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 예술 관련 시들이 주를 이룬다.

임 시인은 “참으로 오랜 기간 망설이다 가슴에 담은 고백들을 쓰게 되었다”며 “부끄럽고 쑥스러운 시집이지만 소박하게라도 가치를 지닌 일을 하



고자 출판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자는 네 번째 시집과 함께 청소년·평생교육 분야 학술 서적인 ‘배움 공동체 이해와 발전과제’(청해사 刊)도 발간했다.

한편 임 시인은 지난 2016년 월간 ‘모던 포엠’으로 등단했으며 광주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슬픈 낙관주의자의 희망의 노래’, ‘우리 함께 희망 아리랑’ 등을 비롯해 평생교육 및 청소년교육에 관련한 다양한 책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입춘 축·가훈 써 드립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 28일까지

입춘(2월 3일)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 한해 운세를 점치는 명리학에서는 신축년이 시작되는 날이다. 예로부터 집안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는 축문을 대문 앞에 붙이곤 했다. 이러한 축문을 입춘축, 입춘방, 춘접이라고도 부른다.

신축년 입춘을 맞아 입춘축과 가훈을 써주는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오는 28일까지 선착순 500가구에 한해 무료로 입춘축(1가구당 1건)을 써 주기로 했다. 희망자는 박물관과 광주시 홈페이지에 신청해야 한다.

예로부터 입춘축으로는 ▲“봄이 시작되었으니,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는 뜻의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나쁜 일은 눈처럼 녹아 없어지고, 많은 복이 구름처럼 일어나기를 기원한다”는 ‘천재설소 만복운흥’(千災雪消 萬福雲興) 등을 즐겨 썼다.

아울러 가훈 써주기 행사(28일까지 신청)도 진행한다. 가정의 소중함을 환기하고 가훈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는 취지다. 원하는 가훈 문구와 사연



입춘방 부착모습.

을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21명을 선정해 캘리그라피 형식으로 제작해 우편으로 보내준다. 입춘축 써주기는 지난해 광주시 미술대전 서예부문 대상 수상자인 서예가 최윤락 씨가, 가훈 써주기는 대한민국 캘리그라피대전 특별상 수상자인 장미라 씨가 참여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태양광발전소

선

각

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